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

김희자*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믿음의 청년으로 자랄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일시적으로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엡 4: 13)는 평생의 장기적인 학습(long-term learni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딤후 3:16)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성인에 의해 기록된 성인을 위한 책이다. 따라서 성인과 다른 구조적 한계성(structural limitation)을 갖는 어린이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constant challenge)’이다. 그 이유는 룿 보티하이머(Ruth Bottigheimer)가 지적한 대로(Coles, 1996, 937)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계급, 나라, 세기, 고백’과 같은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번역자의 주관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때로는 그러한 번역자의 주관성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번역 과정 속에 내재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어린이를 포함하여)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 총신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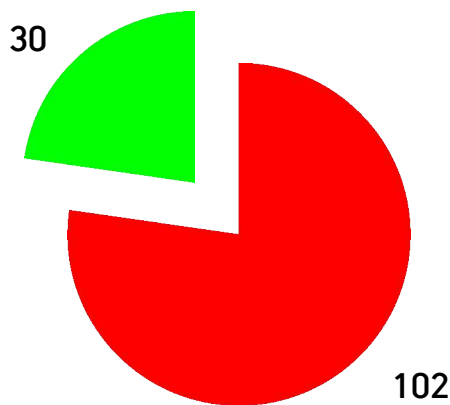
장성한 분량까지 쉬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보화를 교회에 맡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가르치도록’(Calvin, IV. i.1; IV.iii.1)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이 오로지 성인만을 위한 성인용 언어와 문체로 제본되고 제작되어 어린이들에게 성경은 재미없고, 어렵고, 읽기 싫은 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호감도, 학습 자율성, 기대감)를 조사하여 보고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교단) 소속 S교회의 어린이(유년부-54명, 초등부-50명, 중등부-28명)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중에서 “어린이 성경이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학생이 77%(102명)인 반면, “따로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학생은 23%(30명)에 불과하다. 다음의 표1을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히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의 85%가 어린이 성경 발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	6 (86%)	21 (78%)	15 (75%)	15 (100%)	7 (58%)	22 (96%)	6 (86%)	4 (44%)	6 (50%)	102 (77%)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1 (14%)	6 (22%)	5 (25%)	0	5 (42%)	1 (4%)	1 (14%)	5 (56%)	6 (50%)	30 (23%)
합계	7	27	20	15	12	23	7	9	12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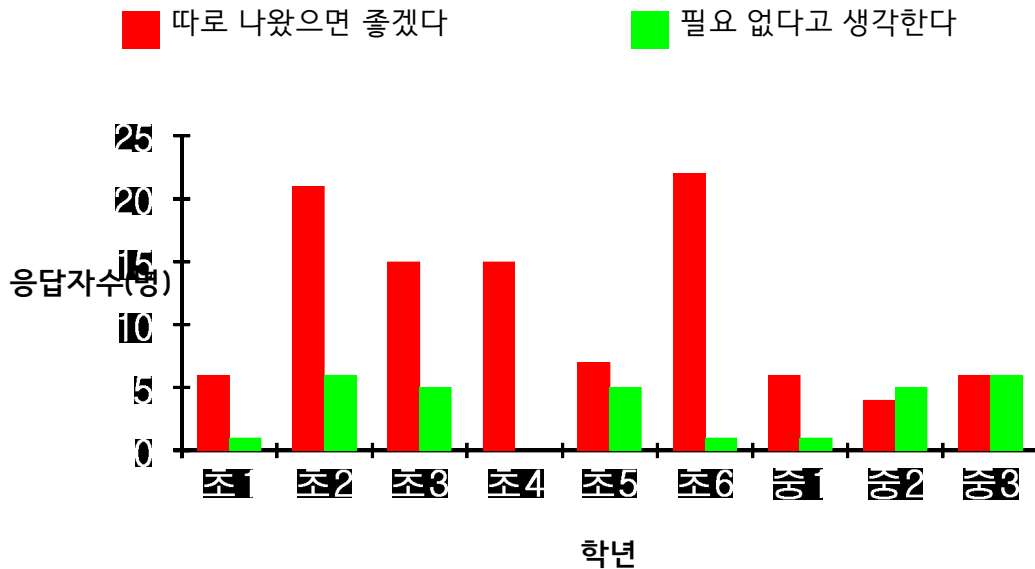
표 1. 어린이를 위한 성경 발간의 기대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의 구원과 양육을 위한 장기적인 학습의 교과



서로서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을 밝히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첫째, 오늘날의 어린이들(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의 성경에 대한 호감도, 학습 자율성, 성경 발간에 거는 기대를 조사하고 둘째, 현재 영어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린이 성경에 관하여



완역형 어린이 성경 4권과 발췌형 어린이 성경 이야기 9권 등 총 성경 13권을 창세기 11장 1절-9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뒤 셋째,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을 통하여 어린이 성경이야기 중심의 발췌형과 성경 본문의 완역을 중심으로 한 완역형 성경 번역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 분석을 위해서는 설문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어린이 성경에 관한 분석은 특정 성경판(version)의 본문 중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 자료의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1.3. 연구의 제한성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정된 번역본(어린이 성경 13권)을 사용하였고 둘째,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분석도 창세기 11장1절-9절 사이의 바벨탑 사건에 제한되어 있으며 셋째, 어린이의 성경에 대한 태도 분석도 특정 교단의 특정 교회에 한정되어 있다.

2.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한 성경에 대한 태도 설문 조사

한국의 교회 어린이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를 알기 위하여 1999년 12월 6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의 S교회의 어린이 132명(초등학생 104명, 중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 조사 방법 - 설문지법

조사 방법은 설문지(참고, 부록: “대답해 주세요”)로 8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설문의 내용은 성경에 대한 태도 조사로서 첫째, 성경 독서에 대한 호감도와 그 이유 분석의 3문항(1, 2, 3) 둘째, 성경에 대한 자율적 학습의 가능성 여부와 그 이유 분석에 관한 3문항(4, 5, 6) 셋째, 어린이 성경 발간에 대한 기대와 원하는 편집 방향에 대한 조사 2문항(7, 8)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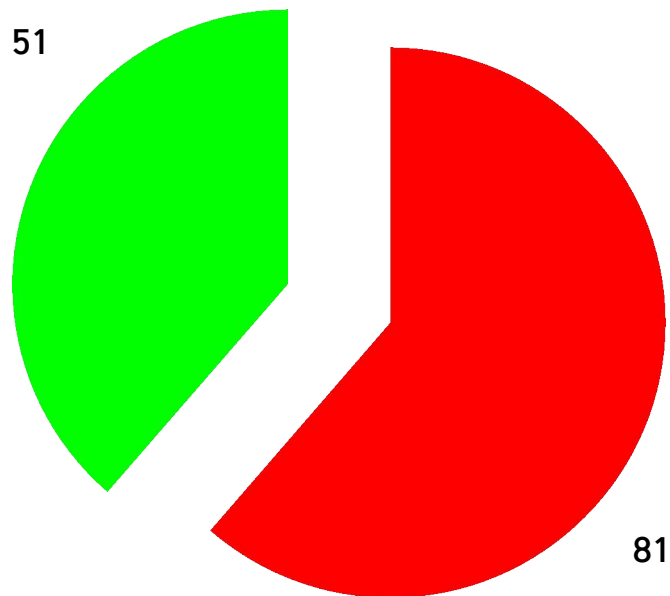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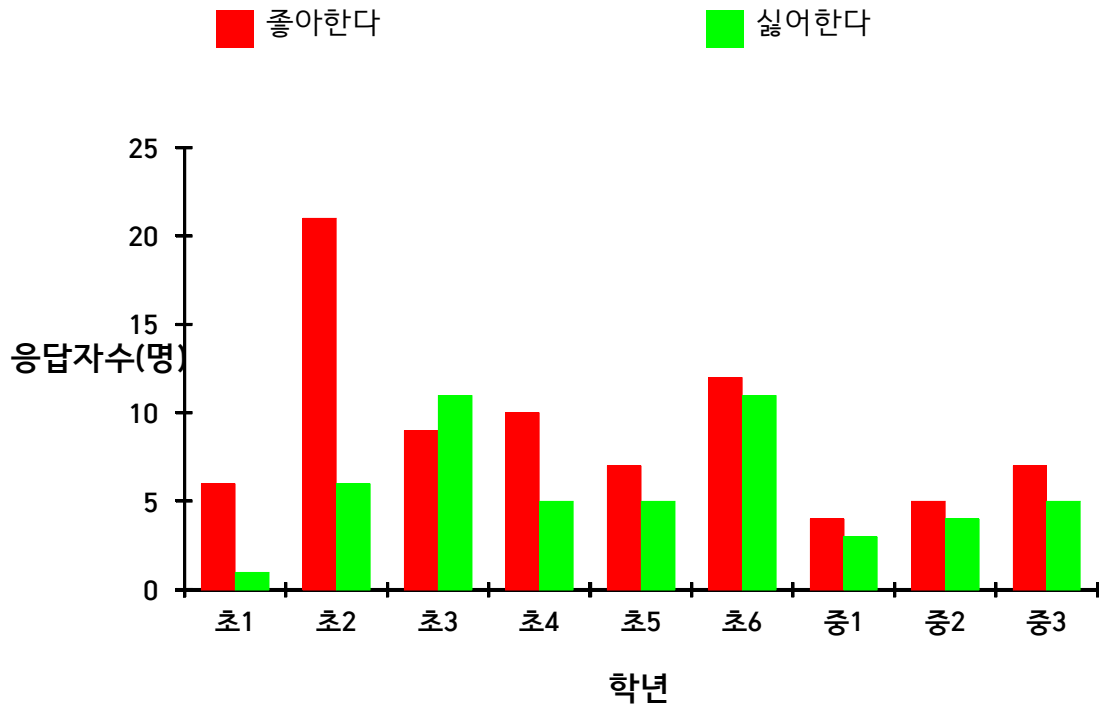
2.2. 조사 결과 및 분석

첫 번째, 성경에 대한 호감도 조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참고 - 표2, 표3, 표4). 표2에서 보면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약 81명(61%)으로 성경에 관한 높은 독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표3에 보면 성경 독서에 대한 이유가 흥미롭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가 5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용 대답(sunday school answer)”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주었고, 반면 “성경이 재미있어서”가 33%, “성경이 예뻐서”는 1%로, 심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감성 시대의 어린이의 취향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부모님이나 교역자의 격려를 받아 성경을 읽는 경우는 10%를 차지했다.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좋아한다	6 (86%)	21 (78%)	9 (45%)	10 (45%)	7 (67%)	12 (58%)	4 (57%)	5 (56%)	7 (58%)	81 (61%)
싫어한다	1 (14%)	6 (22%)	11 (55%)	5 (55%)	5 (33%)	11 (42%)	3 (43%)	4 (44%)	5 (42%)	51 (39%)
합계	7	27	20	15	12	23	7	9	12	132

표2.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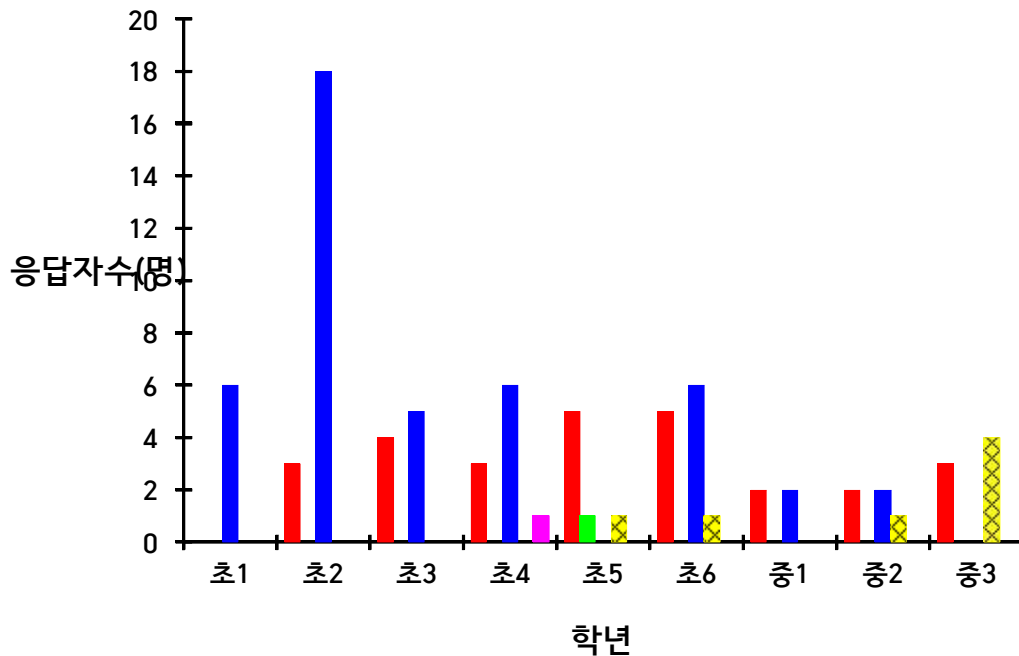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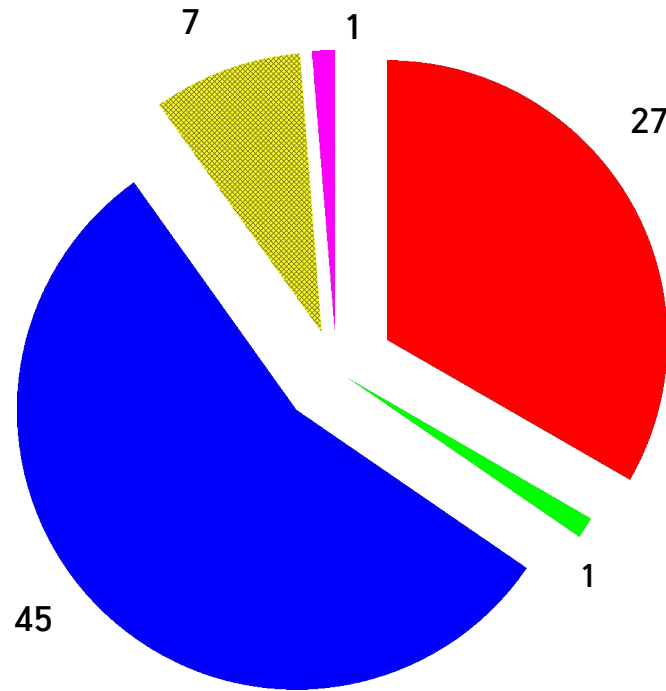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성경이 재미있어서	0	3 (14%)	4 (44%)	3 (30%)	5 (72%)	5 (42%)	2 (50%)	2 (40%)	3 (43%)	27 (33%)
성경책이 예뻐서	0	0	0	0	1 (14%)	0	0	0	0	1 (1%)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6 (100%)	18 (86%)	5 (56%)	6 (60%)	0	6 (50%)	2 (50%)	2 (40%)	0	45 (56%)
부모님이 읽으라고 해서	0	0	0	0	1 (14%)	1 (8%)	0	1 (20%)	4 (57%)	7 (9%)
전도사(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0	0	0	1 (10%)	0	0	0	0	0	1 (1%)
합계	6	21	9	10	7	12	4	5	7	81

표3.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

- 성경이 재미있어서
- 부모님이 읽으라고 해서
- 성경책이 예뻐서
- 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읽기가 어려워서	0	1 (17%)	3 (28%)	1 (20%)	0	6 (55%)	0	2 (50%)	1 (20%)	14 (27%)
무슨 뜻인지 몰라서	1 (100%)	0	1 (9%)	2 (40%)	3 (60%)	1 (9%)	1 (33%)	1 (25%)	1 (20%)	11 (22%)
글씨가 너무 작아서	0	3 (50%)	2 (18%)	0	0	4 (36%)	0	0	0	9 (18%)
재미가 없어서	0	2 (33%)	5 (45%)	2 (40%)	0	0	2 (67%)	0	2 (40%)	13 (25%)
그림이 없어서	0	0	0	0	2 (40%)	0	0	1 (25%)	1 (20%)	4 (8%)
책이 예쁘지 않아서	0	0	0	0	0	0	0	0	0	0
합계	1	6	11	5	5	11	3	4	5	51

표4.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

- 읽기가 어려워서
- 재미가 없어서
- 무슨 뜻인지 몰라서
- 그림이 없어서
- 글씨가 너무 작아서
- 책이 예쁘지 않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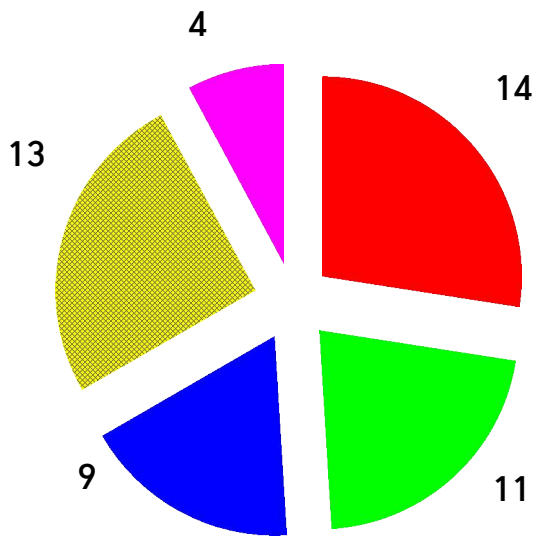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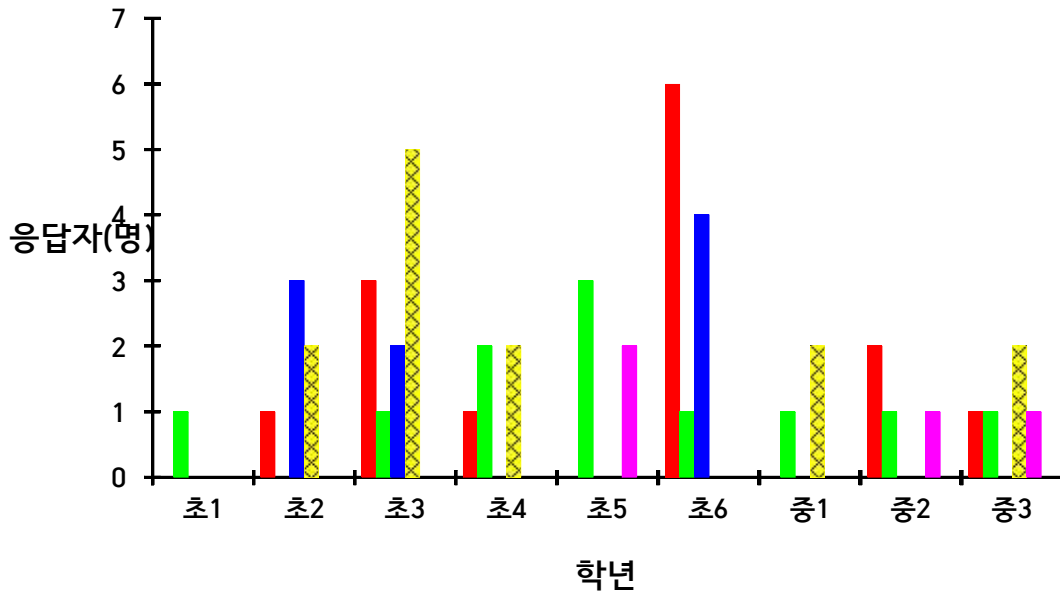


표4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읽기가 어려워서”(27%)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 6학년생(55%)과 중학교 2학년생(50%)이다. 초등학교 6학년은 물론, 중학교 2학년생도 성경의 독해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읽기 싫다고 한 경우가 22%로 나타났고, “재미

가 없어서” 읽기 싫다는 비율이 25%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종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싫은 이유의 47%가 독해의 어려움과 흥미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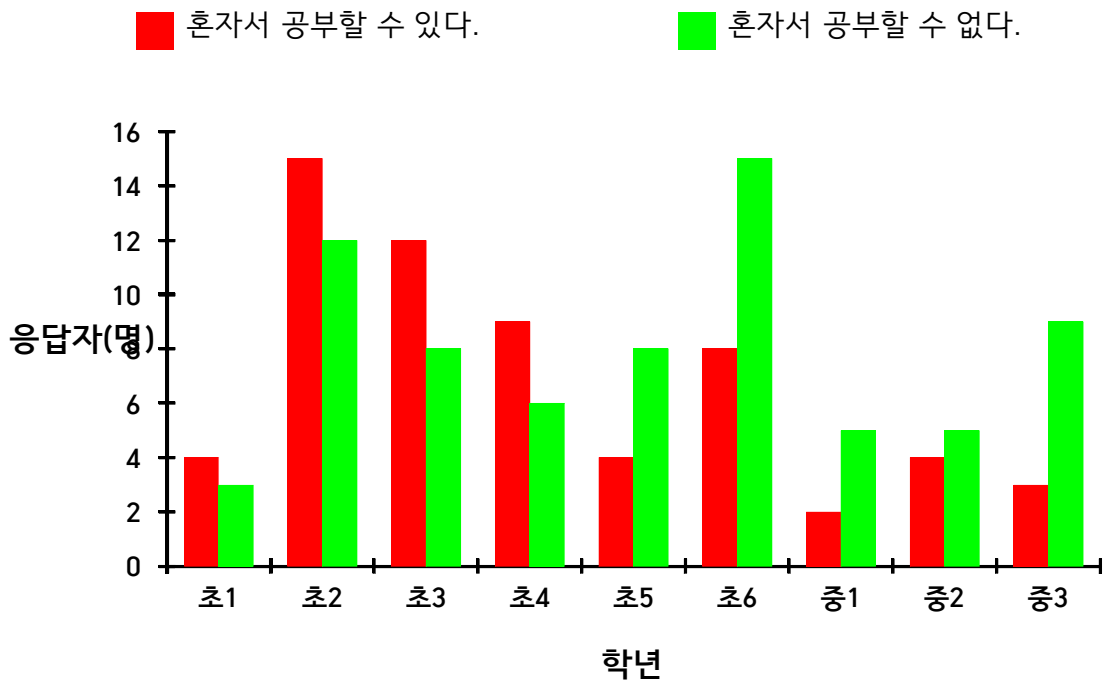
18%의 응답이 “성경책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라고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성경 편집의 중요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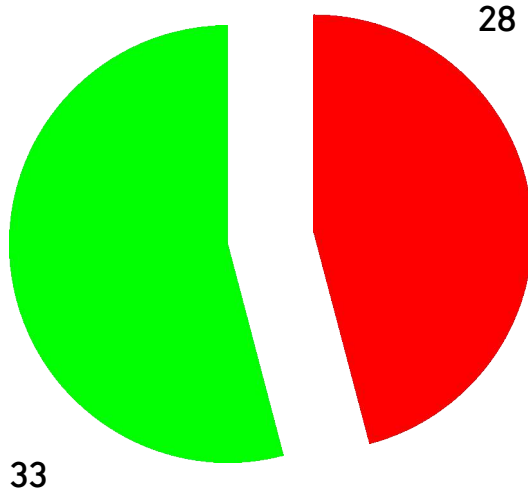
둘째, 성경에 대한 자율적 학습의 가능성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한 결과 및 분석은 표5에서 보듯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가 46%이고, “혼자서 공부할 수 없다”가 54%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학년이 높아 올라 갈수록(중3 - 75%) 성경에 대한 자율적 학습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	4 (57%)	15 (56%)	12 (60%)	9 (60%)	4 (33%)	8 (35%)	2 (29%)	4 (44%)	3 (25%)	61 (46%)
혼자서 공부할 수 없다	3 (43%)	12 (44%)	8 (40%)	6 (40%)	8 (67%)	15 (65%)	5 (71%)	5 (56%)	9 (75%)	71 (54%)
합계	7	27	20	15	12	23	7	9	12	132

표 5.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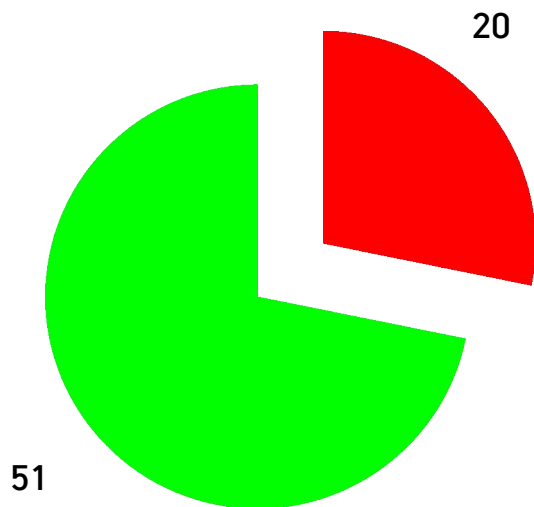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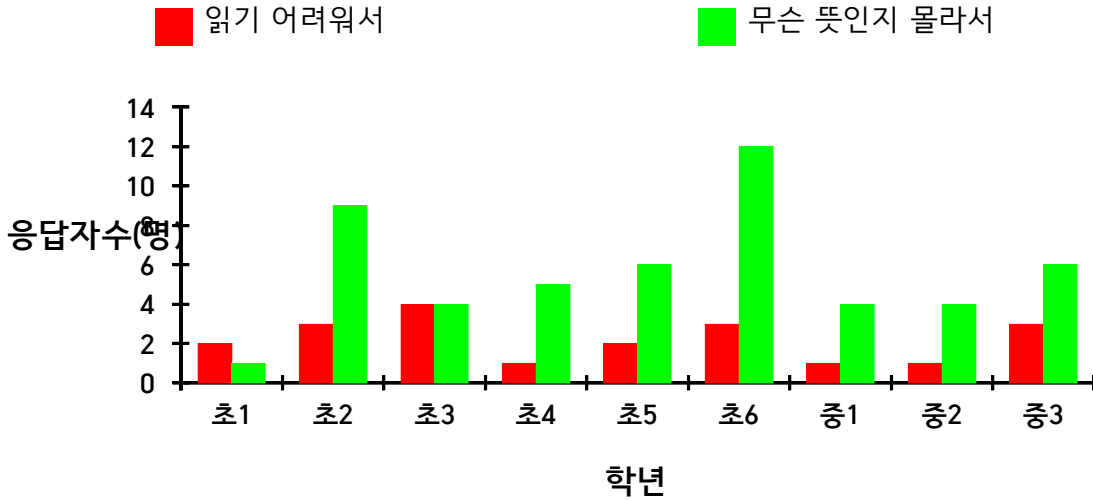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읽기 어려워서	2 (67%)	3 (25%)	4 (50%)	1 (17%)	2 (25%)	3 (20%)	1 (20%)	1 (20%)	3 (33%)	20 (28%)
무슨뜻인 지 몰라서	1 (33%)	9 (75%)	4 (50%)	5 (83%)	6 (75%)	12 (80%)	4 (80%)	4 (80%)	6 (67%)	51 (72%)
합계	3	12	8	6	8	15	5	5	9	71

표7.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이유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이유



3.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

성경 번역자가 어린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그가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성경 번역자는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고 하는 ‘양육’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히 교리적인 것을 발견하는 지적 탐색 이상의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들의 능력과 이해, 흥미 등에 따라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어린이의 영적 성장과 인격적 성숙, 그리고 도덕적 성숙 등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번역하여야 한다.

3.1.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성경의 특성

3.1.1. 성경의 상호 의존성과 통일성

원래 성경(The Bible)은 소책자(the book), 낱 ‘권’들의 모음집 또는 총서이다. 즉

성경은 작은 책 66권을 모아 놓은 책이다. 또한 성경은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며, 성경 상에 나타난 문학형식이나 주제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각 책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과 주제, 그리고 표현 형식은 달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완성’이라는 총 주제에 서로 의존하고 있다. 성경 어느 곳도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각 부분의 의미는 다른 부분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고 조정되고 있다. 각 장과 절들은 전체의 구조적 내용과 형식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주제에 대하여 알아야 될 바를 모두 말해주는 본문은 거의 없다. 예컨대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지니고 있는 아가서만을 가지고는 성경이 제시하고자 하는 완전한 관점을 모두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사랑의 주제에 관하여 서로 참조할 때 그 의미는 더욱 심화되고 보완될 것이다. 이러한 성경이 총서라는 의미를 심각하게 본다면 비록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이라 할지라도 성경 각 권들의 의미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성경도 완역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비록 66권의 책으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성경은 연속되는 사건들과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서로 일관성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은 그 내용상 매우 다양하나,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계속하여 바뀌지만 주인공은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으로 변함없이 남아있다. 따라서 성경의 통일된 주제와 그 주제 아래 각 권에 다양하게 기록된 내용의 일관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도 어린이를 위한 성경은 완역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1.2. 성경의 타문화성,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문화를 반영한 책임을 말해준다. 또한 성경의 주무대는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리스, 로마와 같은 지중해에 둘러싸인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랜 기간에 걸쳐 쓰여지고 완성된 책이며 그 기간만큼이나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성경을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번역자는 먼저 성

경이 쓰였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초대 교회 당시의 관습에 서는, 성인 여성의 경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불명예', '부끄러움'이었지만(고전 11:5-6), 오늘날은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모자나 머리 수건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는 상반된 현실로 다가온다. 죽은 동물의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계약(언약)의 형태라는 사실(창15:17)은, 어린이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럴 때는 각주를 달거나, 문장 상에서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 편 성경에는 어린이에게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극단적인 기록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 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칠십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은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라는 서술이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타문화적 서술은 아무리 친절한 설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 문화적·역사적 거리감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난이성과 비호감성을 야기시키는 극단적이고 지엽적인 문화적 서술에 대한 번역은 어린이 성경에서 연령에 따라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이해의 장애가 있더라도 성경은 다른 역사책과는 달리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 책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다. 성경을 매개로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들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면서, 그것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이 의미하는 가치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책이다. 예컨대,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불신앙을 버려야 할 것을 촉구한다. 성경은 기록된 당시 사건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하여 현대의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이끄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3.1.3. 성경의 문학적 형식성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그 책 속에서 신학적인 설명, 법문, 역사, 서사시, 서

정시, 드라마, 비유, 은유, 격언, 연가, 서간문, 그리고 묵시 등의 다양한 문학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문학형식, 즉 다른 말로 ‘장르’ 마다 고유의 저작 규정과 작문의 규칙이 있다. 본문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번역하려면, 본문이 어느 장르에 속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은 진리를 추상적, 명제적으로 진술하는 대신, 진리를 구체화한다. 문학은 인간의 상상력(이미지를 감지하는 능력)에 호소하는 형식이다. 어린이들은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표현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풍부한 영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식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C.S. 루이스(1958, 3)는 말하기를, “성경 속에는 감각이 들어있다. 성경은 결국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으로서의 성질을 제외시키면, 즉 각 부분을 서로 다른 문학 형식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월호이트와 라이켄(1996)은 성경의 3/4이상이 본질상 설명적이라기 보다는 문학적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성경으로 번역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성경의 문학적 성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익숙하고 흥미 있는 ‘이야기’ 형식에 대한 진지한 고려는 성경이 어렵거나 단조롭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꿀 송이 보다 더 달고’ 재미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전도서의 기자도,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많이 구하였나니(전 12:9-10)”라고 전하고 있다. 성경의 문학적 예술성은 어린이의 풍부한 상상력과 더불어 성경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어린이 성경의 대부분은 문학적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발췌되어 번역된 것이 대부분이다. 월드(1971, 56-57)는 말하기를 “이야기체 형식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야기 한 토막 혹은 몇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신약의 이야기 속에 위대한 이야기, 즉 모든 시대적 공간적 구성의 한 중간에 우리를 앉혀 놓고서 놀라운 극작가이자 이야기꾼인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맺게 해 주는 성경 본문은 대개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야기는 인간의 개성과 인격을 만나도록 하여, 재미와 인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또한 이야기는 타문화적인 요소와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줄여주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이야기는 어린이의 관심을 문맥에 아주 빠르게 집중시키는 힘이 있다. 이야기는 결과에 과한 호기심을 야기시키므로 추진력을 만들어 낸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또 그 다음은?’ 하는 깊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성경 이야기에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이다. 물론 이야기 전체가 바로 의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배경, 인물, 사건을 매개로 독자에게 하나님과 인생에 대하여 알려준다.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독자에게 긍정적인 진실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 형식으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필수적이다. 첫 단계는 이야기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느냐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이 어린이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도록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3.2. 성경 본문의 세계와 오늘날 어린이 세계 사이의 “갭 메우기”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성경을 알고 이해하게 하려면, 성경의 세계와 우리 자신의 경험을 관련시켜 파악하는 방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것을 “갭 메우기”(월호이트와 라이켄, 1996, 99-113)라고 부른다. 성경 본문에 따라 갭의 크기가 다르다. 월호이트와 라이켄이 제안하기를 오늘날의 세계와 성경 세계 사이에 놓여 있는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왕복여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996, 100).

3.2.1. 삽화(그림) 활용의 필요성

성경 번역가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본문을 재현하여 보는 것이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세계를 뒤로 하고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그 당시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그 당시의 풍습과 풍물을 경험하고, 그 당시의 문화적 정황을 상상하며 경험하여 보는 것이다. 예컨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과를 상상 속에서 경험하여 보는 것이다. 목동이 양떼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약탈자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양 우리에서 올리브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할 것이다. 성경본문의 세계로 여행을 할 때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들이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각적 도움이다. 만화, 그림이라든가, 지도, 또는 사진 등이 본문과 함께 사용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음의 표8은 어린이들이 새로 발간될 성경에 거는 기대에 대한 조사이다.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쉬웠으면 좋겠다	0	12	10	11	8	17	4	4	4	70
예뻐지면 좋겠다	2	2	0	5	2	3	0	2	3	19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3	8	0	11	5	13	6	4	5	55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3	5	8	8	3	3	1	2	1	34
만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0	6	5	10	3	2	5	2	5	38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0	9	11	7	7	5	1	3	1	44

표8. 어린이 성경에 거는 시각적 편집에 대한 기대

어린이 성경이 만들어진다면

- 쉬웠으면 좋겠다.
-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 만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 예뻐지면 좋겠다.
-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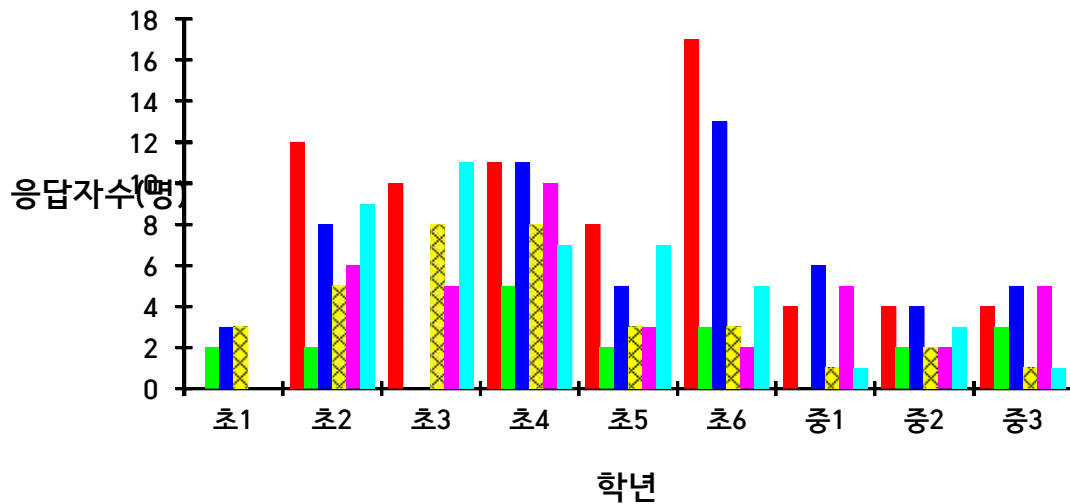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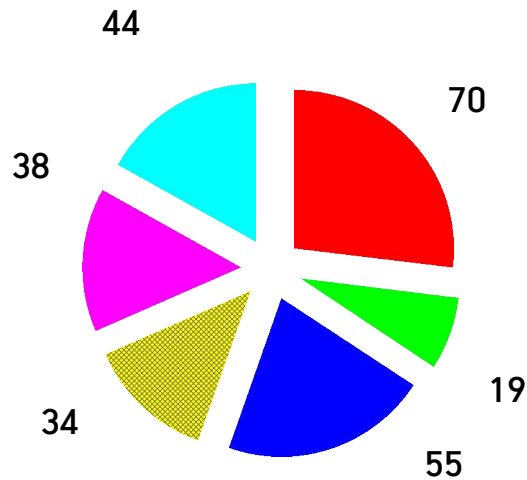


표8에서 보듯이 어린이들은 사진(44%), 그림(34%), 만화(38%)에 대한 기대가 있다. 더불어 성경이 쉽고(70%), 재미있기(55%)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는 시각적 편집과 관련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용 성경에는 삽화가 풍부해야 한다. 되도록 총천연색으로 하되 페이지 전체 삽화보다는 텍스트 중간 중간에 흩어져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삽화는 관련된 내용의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부가적인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두는 성경이 지루하다고 하는 관념을 뛰어넘기 위해서이다. 어린이 성경의 편집상태, 삽화, 제본 등이 가능한 한 현대 어린이 동화책 수준만큼은 되어야 하되 그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3.2.2. 어린이를 위한 언어 활용의 원리

어린이 성경을 번역할 때의 이러한 “갭 메우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언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성경 본문을 자연스러운 어린이의 언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우선 어린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의 개념들을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용어로 옮길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한 현재 쓰이고 있는 도량형과 지리적 용어들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세겔’, ‘규빗’과 같은 단위들은 현재 쓰고 있는 ‘g/kg’, ‘cm/m’ 등으로 고치는 게 좋다. 또 ‘대해(大海)’와 같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지리 용어는 ‘지중해’처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또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는 용어는 ‘갈릴리 호수’와 같이 통일해서 쓸 필요가 있다.

단어가 지니고 있는 내포적인 의미도 시대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요새를 가리키는 ‘산성’이라는 단어는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과 같이 풀어쓰으로써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수사학적 의문문도 어른들에게는 명확히 와 닿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 누구오니까?”라는 시편의 표현은 아이들에게는 답변이 없는 채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학적 표현은 그 속에 함축된 의미를 살려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와 같은 서술문으로 고쳐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상징적 표현을 실제로 “거리에 젓과 꿀이 넘쳐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징적 표현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주되 실제적 의미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은 “그가 죽고 ...”처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의 개념과 성경이 전해주고자 하는 바를 단순화하면서도 적절한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살려주어야 하며 고대 언어가 지닌 이미지가 현대어에서도 가능한 한 충분히 나타나야 한다.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는 다음의 4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Newman, 1986, 425-428). 첫째, 단어 길이: 긴 단어가 짧은 단어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긴 단어도 친숙한 것이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 둘째, 추상성: 내적인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 명사는 본문을 어렵게 한다. 셋째, 빈번성: 빈번성의 문제가 본문 이해에 있어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넷째, 전문적인 용어: 번역자가 본문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적 용어—하늘나라, 메시아, 인자 등—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상용어와 같은 단어인데도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예컨대 ‘부르심’—은 조심스럽게 번역해야 한다. 한편, 할례(circumcision), 창녀(prostitute)같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며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용어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3.2.3. 문장 활용의 원리

문장의 길이가 문법상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른 두 가지 요소 ① 자연성과 ② 기억 적재(memory load)가 문장의 어려움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 자연성은 독자가 기대하는 대로 구성되면 즉 순서에 맞게 배열되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의미이고 기억적재라 함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다른 구문이 삽입될 경우 그 길이가 길면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뜻이다.

아이들이 문장을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첫째는 '반복'이다. 명사/대명사, 동사구/명사구, 전체 사고/부분 사고, 구체적/일반적/구체적, 직접적 진술/암시, 능동/수동, 비은유적/은유적 표현 등의 다양한 반복이 어린이들에게는 성인보다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 둘째는 '언어 패턴'이다. 즉 어린이들의 구어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관계성'이다. 이것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연계성에 기반한 관계, 비유와 대조의 관계를 말한다.

양식(style)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흥미성'으로 강력한 도입, 풍부한 언어, 다양한 문체, 흥미 있는 그림 및 삽화 등이며, 둘째는 '친근성'으로 구어체에 익숙한 문장 패턴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명확성'으로 이는 추상적인 단어는 적게, 어려운 단어는 설명을 해주고 관념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관념/오래된 관념: 새로운 대상, 사건, 개념들이 있으면 어려움이 증가된다.
- 문화적 요소: 현재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 대상 등이 그 의미가 서로 다를 때 새로운 사건, 대상 등을 이해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 (예컨대, 제사의 제물).
- 구체성/추상성: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때 반복의 문제에 신중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개념의 밀도: 새로운 정보가 본문에 소개되는 빈번성을 의미한다.
- 흥미/무관심: 단조로운 문장은 흥미를 잃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스타일로 번역해야 한다.

3.3. 어린이 성경 번역의 원리

De Waard-Nida의 번역 이론(Waard and Nida, 1986)에 의하면 번역은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이라고 하였다. 즉 번역은 두 가지 기능을 하여야 하는데, 원전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여야 하고 동시에 독자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Newman(1986, 424)은 8-12세의 아동 독자를 위한 특별한 번역 원리를 제시해 주었다.

- 비교적 단순한 문법과 구문으로 된 문장으로 10-12 단어를 넘지 않을 것
-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표현은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
- 수식어는 하나만 쓸 것
- 독특한 관용어는 반드시 피할 것
- 빈도수가 적은 어휘도 마찬가지로 피할 것
- 가능한 한 적은 음절로 된 단어를 쓸 것
- 직접적이고 생생한 문체를 쓸 것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어린이 성경을 위한 번역의 5가지 기본 원리(Newman, 1986, 426-428)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활용할 수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에서 직접 번역을 한다. 즉 이미 번역되어 나온 것을 각색하는 수준의 번역은 안 된다.

둘째, 의도된 언어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하나 반드시 그들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일 필요는 없다. 아무리 단순한 언어라고 할 지라도 잠재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쓸 때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르심”(call)은 어린이들이 평상시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전문적인 의미로는 그들에게 낯설다. 한편 바리새인, 안식일, 오순절 등의 단어는 색인에 설명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문장에 있어서 순서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부자연스러운 구조 즉, 도치, 강조 등은 피해야 한다. 이것은 문장이 짧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In him is life” 보다 “Life is in him”이 어린이들에게 이해가 쉽다.

넷째, 본문의 편집방식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문단 분리, 인용구문 분리, 연설, 비유, 서신 등은 앞 뒤 문단과 구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번역자는 본문을 큰 소리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호흡, 리듬, 소리, 강약의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4. 기존 어린이 영어 성경에 대한 언어와 문체를 중심으로 한 내용 분석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1-9절을 중심으로)

4.1.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의 목적과 기능

어린이를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를 제공해주는 데 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읽혀지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룹으로도 읽혀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 성경의 기능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stories)를 제공해주는 것 이상이다. 중요한 건 성경의 메시지를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잠언, 예언서,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서신서 등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체가 아닌 부분을 어느 정도 발췌할 것인가는 작업 초기 단계에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성경은 일반 성경과의 교량 역할을 한다. 즉 이것은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어린이 성경에서 일반 성경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성경은 굳이 완전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독자들이 성경 역사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전체적인 윤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어린이 성경은 그들이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성경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4.2. 영어권에서 발행된 어린이 성경의 분석(총 13권)

교회나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릴 적부터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막상 어른이 어린이에게 성경을 읽히려 할 때, 어떤 성경을 읽혀야할지 망설여진다. 대개 많은 이들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야기 식으로 접근된 어린이 그림성경을 어린이들의 전용 성경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그에 따른 문제들도 많다. 몇몇의 발췌된 주제를 이야기 식으로 묶어 놓은 그림 성경은 쉽게 대하고, 읽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성경의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권 한 권으로 나누어진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다. 연속선상에서 언약과 그 성취를 점진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배우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어린이들이 성

경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한 사건(11장 1~9절)을 발췌하여 영어 권에서 발행된 기존의 어린이 성경에 사용된 언어와 문체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과 가능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13권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창세기11장1-9절)을 중심으로 번역상의 특징들,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 어린이다운 표현들, 편집상의 기법, 문법과 장르 등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mazing Book(Kohlenberger III, John R. & Noel Wescombe, 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91)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 발췌하였고 시대 순서에 따라 본문들이 구성되었다. 각 본문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문장이 본문 앞에 첨가되어 있다. 본문은 세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새로운 단어를 설명하는 'Other Words', 본문인 'God's Words', 본문에 따른 질문과 대답이 있는 'Your Words'이다.

창세기 11장 1-9장의 내용을 보면 우선 삽화가 그려져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고 글씨 크기가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추어 크게 되어 있어서 읽기가 용이하다.

또한 어린이들이 본문을 읽기 전에 전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세계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인간의 죄와 벌의 차원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삽화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즉 고증을 받은 의상과 건축인지 확인이 요구되며 본문 제목이 'Babel and Abram'인데 바벨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인 창11:9절이 본문에서는 생략되어서 독자인 어린이들이 바벨과 탑의 연관성 그리고 바벨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Augsburg Story Bible(Aaseng, Rolf E. Augsburg, 1992)

본문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Bible에서 왔고 주로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회화적인 삽화를 본문의 위나 아래, 또는 문장 중간에 넣고 있다.

"and the Lord said, "Look, they are one people, and they have all one language;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what they will do; nothing that

they propose to do will now be impossible for them. Come, let us go down, and confuse their language, so that they will not understand one another's speech.””

내용에 있어서, 여호와에 해당하는 단어를 “Lord - 주님”으로 번역하여, 어린이들에게 현대적 친근감을 주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자,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의미가 감소될 위험도 있다. 문장이 긴 복합문장으로 한 문장이 길어서, 연령이 낮은 어린이들에게 기억적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The Bible Alive(Clare, John D., Zondervan Pub. House, 1993)

이 성경은 내용 이해를 위한 자료가 풍성하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1:1-9장 아래에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건축물의 특징, 언어의 기원, 성경의 언어,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이스라엘 현지에서, 박물관에서 촬영 혹은 재현한 사진 혹은 그림과 함께 자료로 실고 있다. 이것은 주변 국가의 상황이나 사건을 기술함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적극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이런 시도는 어린이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 일으켜 저절로 성경에 손이 가게 하는 동기와 재미를 더해주고 또한 지도와 연대표, 색인 등이 있어서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문장은 단순하고 쉬워서 읽기에도 편하고 오른쪽 여백에 내용 요약이 있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본문 내용에 아주 적합한 단어 유희도 불만하다(“let's go down and turn their language into babbling, That is why the place wa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made a babble of the language of earth”).

The Bible for Children(The Daughters of St. Paul, St. Paul Editions, 1985)

전체 성경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원사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의미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주어진 본문에서는 가능하면 원 사본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사건을 해석한 상태에서 서술하기도 한다.

“But God had time after time ordered men to multiply and fill the whole earth, so he punished this disobedience by making them no longer able to understand each other's speech. There was such a confusion that they had to stop work and separate”

The Big Book of All-time Favorite Bible Stories(Beers, V. Gilbert & Ronald A.)

만화식의 그림이 왼쪽 전면을 차지하고 있고 이야기 형식의 서술이 오른쪽 면을 채우고 있다. “God knew that the people who spoke the same language

would live together. Those who spoke different language would move away because they could not understand one another”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린 결과만을 강조하고 있지, 그 원인(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교만의 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The Book of God for Children(Wangerin Jr. Walter, Zondervan Pub. House, 1997)

성경본문과 가깝게 서술하고 있으나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는 아니다. 삽화는 매우 사실적 그림으로 바벨탑의 도형그림과 현재 잘 보존된 바벨탑의 일부인 “ziggarat”, 느부갓네살왕 때 다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탑의 모형을 그려놓음으로써 현실적 자료를 중시하는 어린이에게 사실감을 주고 있다.

The Children’s Bible in 365 stories(Batchelor, Mary, Lion Publishing, 1985)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일년동안 성경 이야기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책 서문에 따르면 흥미롭고도 최고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를 그려면서도 큰 맥의 흐름이 있도록 발췌하였다고 한다.

창세기 11장 1-9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야기체(storytelling)로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체의 특징 중의 하나인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성의 서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원 사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임의적으로 해석이 된 채 첨가되고 있다(예컨대 “We shall be famous far and wide, for we shall build the highest tower that anyone has ever seen. We’ll reach the sky itself”, “One group of wanderers decided to settle down”, “God was not pleased” 등).

이 성경 역시 삽화가 그려져 있어서 내용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들려주는 이야기체이므로 직접 인용구—대화—가 없고,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schemes, selfishness, tumbled 등—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한 문장이 복잡한 복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좀더 이해를 요구하는 문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The Children’s Living Bible(Tyndale House Publishers, 1987,13th printing)

이 성경은 Living Bible 전체를 그 구조대로 현대어에 맞게 완역된 성경(Paraphrased translation)이다. 그래서인지 수동태의 문장이 많이 들어가 있고(예컨대 “a plain was discovered in the land of Babylon and was soon thickly populated”), 문장이 장문의 복문이면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예컨대

bitumen, monument등)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번역가의 주관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as population grew; when they have just begun to exploit their linguistic and political unity, just think of what they will do later; nothing will be unattainable), 글씨가 아주 작고 삽화가 없는 등 어른 성경처럼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기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어렵거나 고유한 용어인 경우 각주로 원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예컨대 “language is the basis on which science feeds upon itself and grows.....”).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Sweet, 1986)

이 성경은 어른 성경처럼 전체를 완역하였다. 서문에 따르면 이 성경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도의 자격을 갖춘 학자들 번역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원어 사본에 충실하게 작업하였기 때문에 믿을 만 한 번역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명확한 번역을 하였다는 것이다. 명확한 번역을 위해서 짧고 복잡하지 않은 문장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용어를 사용했고, 어려운 단어들과 고대 관습에는 주를 달았으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수사학적 질문을 서술체로 바꾸었고, 또한 은유의 경우 그 이미지는 가능한 한 보존하되 오해하지 않도록 번역하고 관용적 표현은 현대적 용어로 대체하였다. 그밖에 총천연색의 지도를 첨가하였으며, 주제를 머리말에 적어서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고 색인과 주를 첨가하였다.

본문인 창세기 11:1-9을 살펴보면 원어 사본에 충실하면서도 쉬운 단어로 완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문단을 구분함으로써 난잡하지 않고 고유 용어(본문에서는 바벨)는 각주로 빼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편집상으로 볼 때 어린이들이 보기에 용이하도록 직접 인용을 따로 한 문장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지 않았고 삽화가 없어서 어린이들의 흥미, 친근성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 사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을 “God”, “YHWH”대신 “the Lord”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적 의미로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 구속자의 의미를 감소시킬 위험도 있다.

또한 본문의 제목을 “The Languages Confused”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이 성경 전체의 맥에 비추어 약한 것 같다. 자칫하면 본문을 읽으면 심술쟁이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Tower against God”같은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목이 아쉽다.

Marian's Big Book of Bible Stories(Schoolland, Marian, Eerdmans Pub.co., 1975)

이 성경은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 나이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어린이를 위한 노력이 보인다. 단문장을 중심으로 하여 어린이의 기억적재에 관심을 갖고 있다. (“At that time all the people talked alike. No one talked German or French or English. They all talked the language of Adam”).

Psalty's Kids Bible(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

The Teen Study Bible(Richards, Larry and Sue,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이 두 성경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이어 사본에서 수백 명의 학자들이 직접 작업한 완벽한 새로운 번역판이다.

이 두 성경의 번역 상 특징으로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번역하기, 문학적인 독특성을 잘 드러내고 공적이며 사적으로(가령 읽고, 가르치고, 예전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번역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번역자들은 성경의 무오성, 권위성을 인정하고 성경 저자의 사교의 신뢰성에 기초를 두었다. 성경 저자들의 문학적인 스타일들을 반영하기 위해 히브리어나 아람어 그리고 헬라이어의 어휘와 문법적인 강조를 하기도 하였다.

Psalty's Kids Bible

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성경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 되어 있다. 목적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도록 돕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것이다. 컬러판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Psalty Says’(짧게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내용을 쉽게 읽도록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배우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이신지, 모든 시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게 되며,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준다), ‘Words to Sing’(각 노래들은 성경의 구절들로 되어 있다), ‘Eyes’(어린이들의 가슴속에 말씀이 잘 심겨지도록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기이다), ‘Psalty Introduces’(성경의 전체에 대해 사실들과 정보를 보다 재미있게 소개한다. 성경을 읽기 전에 거쳐가야 할 단계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 중에도 미국이나 영국 그 어디에도 중심을 두지 않는 순

수한 영역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각 주를 통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 나름대로의 언어의 특징들로 설명해 주었다. 즉, 문화적인 그 당시의 상황과 특성들(그 당시의 바벨론의 상황에 대해 바벨이라는 단어를 설명함으로 동시에 알려줌)을 설명해 주었고,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용어에 대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것을 피하여 단순한 설명을 해 주었다. 그럼에도, 지역 이름을 말할 때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여 잡다한 주(각주)를 피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 어린이 성경에 굳이 성경 원전에서 따 온 각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전(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했지만(각주에 원어에 대한 설명과 심지어 70인경에 대한 인용도 적혀 있음), 어린이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용어, 그리고 문장구조는 아니다. 또 문장을 풀어 가는 기법은 이야기 식(나열 식)으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만, 편집상의 기교나 문체 그리고 기법에서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감이 있다. 우선 한 지면이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린이들이 읽기 전 거부감이 들 수 있고, 그림이나 부분 삽화가 삭제되어 있어 흥미와 매력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

The Teen Study Bible

이 성경은 10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구성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10대를 위해 성경 전체 66권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Introduction', 10대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다룬 'The Bible Says',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직면했었고, 또 늘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를 생각해 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Direct Line', 성경의 특성과 상황을 잘 고려한 조언과 대답이 있는 'Dear Sam', 일상적인 질문들에 대해 퀴즈로 대답하는 'Quizzer', 성경의 위대한 구절에 주목하는 'Bible Promises'로 되어 있다.

특히, 중간 중간에 컬러로 되어 있는 페이지는 10대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데, 이 곳에서는 학교, 돈, 성, 죽음 등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10대를 위한 이 성경은 표지와 속지가 컬러판으로 되어 있어 영상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다. 번역 역시 성경을 완역했으며, 동시에 10대에게 맞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다루었다. 원문 중심의 번역을 하였고(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원전), 십대에게 맞는 쉬운 단어, 문장 그리고 문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단어는 아래에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고, 그 설명 역시 길지 않아 읽기가 좋다. 글을 이어가는 기법 역시 설명 혹은 이야기 식으로 자연스러움을 가진다.

편집 역시 눈에 띄게 배열하였다. 그러나 이 성경은 20세기에는 좋은 성경으로 존재하였으나 21세기의 십대들에게는 다소 부적당한 면들이 있다. 요즘 'N'세대들은 글이 뻑뻑한 책을 과히 좋아하지 않는다. 표지나 혹은 큰 주제 앞에만 그림이나 삽화를 둘 게 아니라 성경의 본문을 잘 설명해주면서도 성경내용을 암시해줄 수 있도록 본문 중간 중간에도 삽화나 그림 자료를 넣어주었으면 싶었다.

Read with Me Bible; An NIV Story Bible for Children(4-8세)(Zondervan co., 1997)

만화적 삽화와 더불어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가능하면 쉬운 언어와 단문을 사용하였다. 여기서도 'Lord'를 사용하여 현대적 친근감을 높이고 있다.

"so the Lord scattered them from there over the whole earth. And they stopped building the city. The Lord mixed up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there. That's why the city was named Babel"

5. 결론: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을 통한 방향 설정

한국의 상황에 있어서 어린이 성경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발간되어야 한다(참고 표1). 문제는 어린이 성경을 어떠한 형태로 발간하느냐에 있다. 성경이 일점 일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믿음 안에서 완역형 번역의 경우와, 어린이에게 성경이 내재하고 있는 역사적, 신학적, 문화적 난해성에 따라 성경이야기 중심의 발췌형 번역의 두 가지 형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이 두 가지 형태의 번역의 방향과 원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를 하였다.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번역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의 사고발달 이론과 언어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주로 연령에 따라 번역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네덜란드 성서공회의 신약 번역자이면서 연구원인 홀랜더(Hollander, 1986, 420-425)는 제안하기를 완역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이는 8세에서 12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잔인한 묘사나 성적비행 같은 것도 빼지 말고 다 번역하여 어린이들도 성경의 모든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3학년(교회에서는 유년부에 해당)까지는 발췌형의 성경이야기를 권장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연령은 완역본을 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완역의 경우, 어느 수준(언어, 문장, 편집 등)으로의 완역이나 일 것이다.

완역형이든 발췌형이든, 어린이 성경 번역자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첫째, 어린이 성경 신학의 정립**이다. 어린이 사고의 한계성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번역자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을 하면 번역자가 믿거나, 옳다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방향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의사소통 하는 길이 바로 성경인 만큼 우선 이 성경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어린이들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인들의 책으로서 성인들이 썼고 성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이유로 어린이 성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어린이들의 이해를 초월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해도 하나님은 뭔가 말씀 가운데서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것을 찾고 계신다. 즉 성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어린이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로, 힘, 격려의 메시지를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어린이들도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보호하심을 식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성경을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번역자의 주관에 따라 성경 내용을 첨가, 삭제, 변경, 발췌해서는 안 된다. 서기관들이 성경 사본을 필사했듯이 번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게끔 해야 한다. 보티하이머는 유럽의 많은 어린이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신, 즉 이성적이고 친절하고 판단력이 있는 신으로 변형시켜서 번역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Coles, 1996, 939). 그러나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와 불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기도 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들을 물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어린이들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때 어린이들도 신실하고 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 성경 신학의 정립은 원사본의 문자 그대로를 직역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성경의 내용 중에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억지로 강요, 주입해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식이 많은 것을 곧 신실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곧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의 집합체(a collection of facts)가 아니다. 그대로 살아야 하는 실제(reality)의 계시이며 진리(truth)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knowledge about God)에 매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ing God)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번역자는 성경이 요구하는 반응대로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성경적 개념들(concepts)은 실재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실제의 의미는 그 발달 연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다. 즉 그 개념의 형식(form)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의미(significance)가 옮겨질 수 있도록 번역할 때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본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은 암기해야 할 지식이 아니며, 또한 자신의 이성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 함께 하며 전인격을 만족시키는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 성경은 할 수 있다면 원전(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에서 한국의 어린이에게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어린이 언어로 완역되어야 한다. 어린이 성경은 성경의 통일성과 상호의존성,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하나님의 영감을 통한 영적 능력의 일관성을 위하여도 완역되어야 한다. 어린이 성경의 완역 프로젝트는 물론 엄청난 시간과 전문적인 인적 자원, 학술적 자원, 재정적 후원과 더불어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21세기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오늘날의 한국의 어린이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이다.

셋째, 보다 낮은 연령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성경을 발췌하여 이야기로 엮어나갈 때, '이야기'라는 장르가 번역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와 문학적 상상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성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식으로 성경의 사건이나, 주제를 선택하거나 배제할 때 번역자의 주관성이 하나님의 영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자는 성경을 발췌할 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아르체아(Arichea, Jr. 1987, 31-33)는 성경을 발췌할 때의 기본적인 원리를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어린이 신약성경」의 발췌 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성경의 독특한 주제와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주어야 한다.

2)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3) 통일성과 다양성에 있어서 성경의 실제적인 특성을 나타내주어야 한다. 즉, 대개 어린이용 성경은 이야기체로 된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많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경향을 지양하고 성경에 있는 다양한 문학 장르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4) 예상 독자가 8-12세의 어린이들이므로 이 연령에 맞게 발췌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은 피해야 한다.

a)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

b) 매우 심오하고 복잡한 신학적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c) 강간 같은 잔혹한 내용을 다룬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용어로 요약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5)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다른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이다. 대부분의 독자가 크리스천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보다 폭넓은 독자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요약된 구약성경」(the Shorter Old Testament)의 발췌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위대한 파노라마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2) 작은 단위보다는 보다 크고 연속적인 섹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신약에서도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특별한 인간적 관심사를 다룬 부분은 대개 포함된다.

5) 위대한 영적 자원과 공동체 예배 혹은 개인 예배에 사용되어온 내용도 포함된다.

6) '불온한'(expurgated)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요약된 구약성경(ShOT)은 어린이 구약성경(the Children's OT)을 위한 시작점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어린이 구약성경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린이 구약성경은 한층 더 요약된 구약성경(Shorter Shorter OT)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 내용의 번역뿐 아니라 어린이 성경의 제본과 편집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참고 표 8). 특히 정보화 시대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 예술적으로 고감도의 성경책 제본과 책표지 디자인도 매력적으로 설계된다면 어린이들이 성경을 더욱 친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적절히 들어가야 할 그림이나 삽

화도 고증을 통한 전문인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성경완역의 경우 전체 분량의 부피와 무게가 어린이에게 과중할 것이므로 책을 분리하여 여러 권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한가지 더 바란다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전자 언어 - 동영상, 음성, 문자'로도 어린이 성경이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실제로 어린이 성경 번역에 착수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을 구성하여 하나의 팀 프로젝트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학자, 기독교 교육자, 언어학자, 어린이 심리학자, 아동 미술가, 사회학자, 고고학자, 성경 복식 연구자, 컴퓨터 공학자, 교육 공학자 등의 전문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 구성, 편집하여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이 '제일 좋아하는 책' 또는 '제일 좋아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기를 기도한다.

부록: 성경에 대한 어린이 태도 조사 설문지

“대답해 주세요”

나는 초등학교 _____학년, 또는
중학교 _____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의 질문은 성경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의 대답을 참고하여 어린이 성경, 또는 청소년 성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하나만 골라서(○)표로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1) 나는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 2번으로 가세요.
2) 나는 성경 읽기를 싫어합니다. () 3번으로 가세요.
2. 왜? 1) 성경이 재미있어서 () 2) 성경책이 예뻐서 ()
3)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 4) 부모님이 읽으라고 해서()
5) 전도사(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3. 왜? 1) 읽기가 어려워서() 2) 무슨 뜻인지 몰라서 ()
3) 글씨가 너무 작아서() 4) 재미가 없어서 ()
5) 그림이 없어서 () 6) 책이 예쁘지 않아서 ()
4. 나는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 () 5번으로 가세요.
나는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없다. () 6번으로 가세요.
5. 왜냐하면? 1) 읽기 쉬워서() 2) 뜻을 이해하기 쉬워서()
6. 왜냐하면? 1) 읽기 어려워서() 2) 무슨 뜻인지 몰라서()
7. 나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이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 ()
나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8. 만약 어린이 성경이 따로 만들어진다면. . . 필요한 만큼 ○표 하세요.
어린이 성경은 (쉬웠으면, 예뻐서, 재미있었으면, 그림이 있었으면,
만화가 있었으면,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 문헌

- 루이스, C. S. 「시편 감상」. 뉴욕: 하코트, 브레이스 앤드 월드 출판사, 1958.
- 볼친, John E. 「성경을 이해하기」. 다우즈너 그로우버: 인터벌시티 출판사, 1981.
- 월드, 아모스 N. 초기 기독교 수사법. 캠브리지: 하버드 대학 출판부, 1971.
- 호이트, 짐 & 래런드 라이켄.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비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1996.
- Arichea, Jr., Daniel. "Translating the Old Testament for Children: Genesis as a Test Case", *Practical Papers for the Bible Translator*, 38. 4, 1987.
- Coles, Robert. "The Shaping of Children's Bibles", *Christian Century*, 113, 1996, 937-939.
- De Waard, Jan and Eugene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Nashville: Nelson, 1986.
- McNeill, John T(ed).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2*.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 Newman, M., Barclay. "Translating Scripture for Early Youth", *Bible Translator* 37, 4, 1986, 425-428.